

여성경제인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김승수 전주시장,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소속 기업인과 간담회

김승수 전주시장은 12일 전주시장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소속 여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의 제8대 신임 임원진이 구성된 후 첫 만남의 자리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와 여성기업 발전을 위해 애써온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여성창업

및 권익신장,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여성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이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매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쌀 100포를 전달했다.

이날 후원된 쌀은 지난 1월 협회 전북지회장 이·취임식 때 화환 대신 받은 쌀 30여 포대에 추가로 여성경제인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열쇠는 청년창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며, "여성기업과 청년창업기업, 장애인 기업, 중소기업, 향토기업 등 지역의 모든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공구매 목표(물품, 용역은 5%, 공사는 3%)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5%의 물품(공사·용역 포함) 구매율을 기록하는 등 여성기업 지원시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2일 전주시장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소속 여성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 특례시 지정, 주민자치위원들도 나서

한옥마을서 범시민 서명운동

전주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임정웅)는 지난 11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각 동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 및 함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그동안 소외받아온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앞장서자는데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전주시 35개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이날 캠페

인에서 위원들은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 등을 상대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며 범국민 3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주민자치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효철 기자



척수손상 장애인 대상 전북대병원, 무료 검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12일 본관 지하층 모약홀 로비에서 전북도에 척수손상 장애인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와 공공보건 의료사업단, 전라북도 척수장애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불의의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은 척수장애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휠체어에 실은 재활의 꿈'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척수손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 소변과 혈액검사를 등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의료진의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척수장애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무료검진과 상담을 진행하는 재활의학과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척수손상을 비롯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와 보호자들에게 유용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승객 태운 채 만취운행

60대 선장 붙잡혀

만취상태로 승객이 탄 낚싯배를 운행한 60대 선장이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4.9t 낚싯배를 한 명 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자정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7시 신시항에서 승객 7명을 낚싯배에 태운 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다. 음주상태로 5 이상 선박 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리지며 5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석훈 기자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전주시, 무보험운행 사전예방 홍보 지속 추진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보험차량을 뿌리 뽑기 위한 홍보 및 수사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무보험운행 상습 위반자는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난, 대표차 유통 등으로 무보험운행사건이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강

기미제사건 및 100건 이상의 다량 적발사건에 대한 집중수사 △미출처자에 대한 소재수사 강화 △피의자 야간조식반 운영을 통한 무보험운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무보험차량 운행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청사 내에 무보험차량의 운행금지 및 의무보험가입을 촉구하는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의무보험 가입안내 문구가 담긴 자체제작 불판을 내방객들에게 배포하는 등 무보험운행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자동차의무보험에 늦게 가입한 차량 4만5138건에 대해 22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무보험운행이 적발된 222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224건에 대해 7100만원 범칙금을 부과했다. /송효철 기자

승용차로 금은방 돌진

귀금속던 남성 경찰수사

새벽을 틈 타 금은방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12분경 군산시내 한 금은방에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로 인해 출입문 셔터와 유리창이 파손됐고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금은방에 침입해 4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금은방에 침입해 도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안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동일수법 등을 조희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강석훈 기자

덕진구, 6월까지 에코시티 안전 통학로 확보 추진

신도시로 조성된 전주에코시티 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인도가 개설된다. 전주 덕진구는 송천동 동부대로에서 오송중학교까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에코시티는 현재 1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있지만 현재 에코시티 내 중학교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동부대로를 횡단해 인근 오송중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중인 동부대로와 오송중학

교 구간의 경우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에코시티에는 현재 공사중인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까지 총 7,658세대의 2만3,47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통학로 이용 학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덕진구는 이날 말부터 오는 6월말까지 총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폭 2m정도의 인도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키로 했다. /송효철 기자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들어요'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문화행사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합행사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회장 노창욱)는 지난 12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고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각장애인 11명으로 구성된 장구 공연과 발달장애인 6명으로 구성된 태권무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에 기여한 유공시민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또, 장학금 전달식과 축하공연,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노창욱 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언제나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일자리와 이동권, 주거권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형 중기 특화분야 지원

시, 2022년까지 12억 투자 탄소 등 6개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자생력이 부족한 50인 이하 특화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화 전문 컨설팅 지원부터 홍보, 마케팅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중소기업 수요분석을 통해 △탄소 △식품 △공예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화장품의 6개 특화분야를 선정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 특화분야의 육성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컨설팅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42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정부 중점추진 과제인 중소기업간·기술간 융복합 지원을 통한 융합과제 발굴과 신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컨설팅지원 △특화분야 시제품

제작지원 △생산성 향상지원 △시험평가/인증지원 △디자인 개선지원 △마케팅지원 △스마트워딩 펀딩 투자지원 △산업간융합지원의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선정된 특화분야 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이종산업간 융합을 통해 우수제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산업간 융합지원과 함께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가치투자 정보제공 및 소셜 펀딩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수요분석을 통해 △탄소 △식품 △공예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화장품의 6개 특화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강병구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은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토기업을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www.kctechr.kr)를 참고하거나, 기술원 기술정보마케팅지원센터(063-219-3584)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강·절도 사범 집중검거기간 운영

전북경찰청, 7월 5일까지

전북경찰청이 강·절도 사범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민생침해 범죄 근절 및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3개월 간 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절도사범은 불철인 4~6월에 집중 발생해 피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습적 사범 검거 집중 및 주요 강·절도 사건 발생시 현사·과속수사·지역경찰 동시출동 등 초기

충력 대응으로 신속한 범인검거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지원센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료비·생계비·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강·절도 빈발 지역에 대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로 안정적 민생치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후신 전북청 형사과장은,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형사활동도 보다 고도화되고 있다"며 "강절도 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회복적 형사활동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청, 의경부대 재난대응 교육 실시

의경부대가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의경부대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4월 전북청과 소방본부가 체결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119안전체협관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상황 체험과 응급처치 실습, 완강기 사용법 등 위기대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인철 전북청장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침착



한 대응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숙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원들이 앞으로 계속될 교육 훈련 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